

중국 제13차 전국노동위생과 직업병 학술회의 참가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1. 목적

- 중화예방의학회 노동위생·직업병분과 및 직업병전문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 제13차 전국 노동위생 및 직업병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 업무상 질병 발생관리 및 예방활동”에 대한 기조연설 발표
 - ICOH 2015 서울 개최 및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의 주제발표내용 및 특별세션의 주요 주제를 홍보하여 중국의 산업보건관계자 참석을 유도

2. 출장개요

- 출장기간 : 2014. 8. 20(수) ~ 8. 22(금) [2박 3일]
- 출 장 지 : 중국 산둥성 태안시 태안은좌가야호텔 3층 컨퍼런스
- 출 장 자 : 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장 김은아, 국제협력팀장 이인섭

3. 중점 수행사항

- 전체회의에서 기조연설 발표
 - 발 표 자 : 직업건강연구실장
 - 발표주제 : 한국의 산업보건 : 업무상 질병의 발생 및 관리방안
 - 발표일시 : 2014. 8. 21(목) 10:00 ~ 11:40
- 전체회의에서 ICOH 2015 홍보 및 서울대회 참석유도
 - 발 표 자 : 국제협력팀장
 - 발표일시 : 2014. 8. 21(목) 11:40 ~ 11:50
 - 내 용 : ICOH 2015 프로그램 소개 및 동영상 상영

4. 출장 주요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14. 8. 20(수)	○ 출국(부산 13:10) → 도착(지난 16:20) ※ 중국 지난 → 태안(18:30)	대한항공
'14. 8. 21(목)	○ 기조연설 발표 및 ICOH 2015 홍보 발표 ○ ICOH 2015 홍보 실시	
'14. 8. 22(금)	○ 전체회의 참석 ○ 지난 출발(15:05) - 인천, 부산 도착(20:40) ※ 중국 태안(11:30) → 지난(13:30)	대한항공

5. 소요예산

II. 주요 발표내용

□ 중국의 직업병관리 방향(북경대학제3병원 직업병연구센터 조금환)

○ 직업병의 중점 관리 방향

- 직업병의 과학적 관리
- 임상적 치료가능한 전문인력의 양성
- 직업병 치료의사의 자격 관리 강화

○ 사회적 의료시설의 충분한 시설 활용

- 대학 병원 등 대형병원의 위행행정부문의 적극적인 참여필요
- 법규 및 정책개선사항으로서 직업병자의 관리카드 제도 도입
- 중재(Interbention)을 통한 업무지원

- 위생행정부문에 작업관리 업무를 강화
- 각 성의 국가 위생센타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

○ 직업병 의학의 환경변화 유도 및 발전 가능성 제시

- 직업의학을 종합병원내의 조직에 도입 및 확대
- 물리적 및 화학적인자의 노출평가 및 관리 강화
- 환경 및 전자파의 유해·위험성 평가 및 관리 강화
- 중대사고에 직업의학을 연결하여 사회적 문제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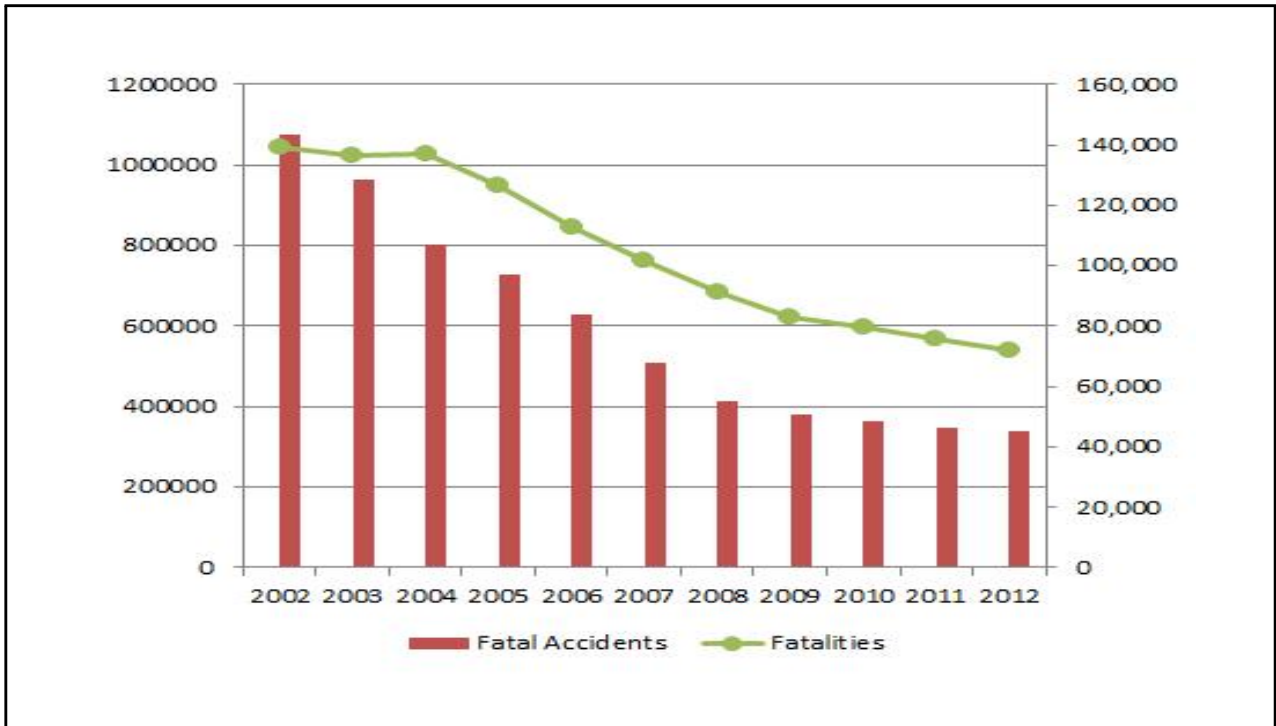
○ 중국의 중대사고 및 사망자 통계

- 1990년 이후 중국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 2002년 이후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 2012년에 336,988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71,983명이 사망함
- 연도별 중대 산업 사고 및 사망자 수

(단위 : 명)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대사고	1,073,434	963,976	803,571	727,945	627,158	506,376	413,752	379,244	363,383	347,728	336,988
사망자수	139,393	136,340	136,755	126,760	112,822	101,480	91,172	83,196	79,552	75,572	71,983

<연도별 중대 산업 사고 및 사망자 수>



□ 일본의 화학물질관리 방향(일본 국제협력단 중국파견 히데오 오자와)

○ 화학물질 노출 감소를 위한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강화

- 사업주는 자율적으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며 적절한 리스크 감소 조치를 실행하여야 함.
- 개정 안전위생법은 이러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후생노동성에서 이러한 의무조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기존에는 100개 정도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만 근로자 노출을 제한하여 왔으나 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이외에 수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들 화학물질의 리스크와 유해성은 문제로 남아 있음

○ 근로기준국에 화학물질 리스평가실 운영

- 근로기준국 화학물질 유해성 관리부내에 “리스크평가실” 운영

『리스크 평가관련 개정 노동안전위생법 주요내용』

○ 안위법 58조를 삭제하고 안위법 58-2를 신설하여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하는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

- 건축, 시설, 원료물질, 가스, 증기, 분진, 작업행동 및 기타 업무 등으로 기인한 유해,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 화학물질, 화학물질 함유제재, 기타 물질에 관해 독성 등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조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적용

-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규정에 더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기존 안위법 58조에서는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화학물질 함유제재, 기타 물질에 관해 독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를 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 리스크 평가 및 관리(5단계)

- 유해인자 파악

- 노출 근로자 파악 및 노출특성 파악

-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파악하여 관리상태가 적절한지 또는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결정

- 평가결과 기록

- 평가결과 검토 및 필요시 개선

○ 노출기준 결정

- 유해인자 평가의 마지막 단계에서 물질별 노출기준을 결정해야 함
- 일반 대중을 위해 요구되는 수준까지 화학물질 노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장을 위한 관리수준은 일반대중을 위한 요구수준보다는 높게 설정됨

※ 노출기준 결정

- 발암물질의 경우 일반대중에 대해서는 암 발생율이 1/100,000 ~ 1/1,000,000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출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암 발생율이 1/1,000 이하가 되도록 정함
- 기타 독성물질의 경우는 동물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안전계수를 고려하여 1/100 이하의 수준이 일반대중에 적용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계수를 1/10 정도가 고려됨

○ 노출수준 관리

- 근로자가 유해성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는다면 관리적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실행 가능한 수준 이하로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임
- 우선 근로자에게는 일반대중을 위한 노출기준과 작업자를 위한 노출기준 정보 모두가 제공되어야 하며
- 사업주는 작업환경 개선조치를 취하여 리스크 제거를 위한 실행 가능한 수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또한 근로자들이 일반대중보다 높은 리스크 수준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건강은 상시 체크되어야 함

【덧붙임】

제13차 전국노동위생과 직업병 학술회의 개요

□ 개요

- 주최 : 중화예방의학회의 노동위생·직업병분과 및 직업병전문위원회
 - ※ 주제 : 건강한 업무환경, 일다운 일을 통한 사회안전을 구축하자
- 주관 : 산둥시 직업위생 및 직업병예방치료연구소
- 협찬 : 태안시 직업병병원
 - 기간 : 2014. 8. 20 ~ 8. 24.
 - 장소 : 산둥성 태안시 태안은좌가야호텔
- 참석자 : 노동위생직업병학계의 과학기술자와 관리인원 500명

□ 주요 발표주제

- 직업병과 건강감독
- 직업위생평가 및 위생보호
- 물리적인자 관리방향 및 인간공학
- 직업성 폐질환 관리방향
- 직업위생관리
- 직업 및 환경관리
- 공업중독(화학물질) 관리방향

